

고규홍의 '나무 생각'



백범이 향나무를 심은 뜻은

1946년 8월, 백범 김구 선생은 충남 공주 마곡사를 찾았다. 일제 침략자들이 이 강도에서 물러가자 조국에 돌아온 선생은 침략자들에 항거한 투쟁의 역사가 담긴 곳을 찾아 나선 것이다. 선생이 마곡사에서 특별 강연을 한 건 수감 생활을 했던 인천 감옥에 이어 두 번째 대중 집회였다.

백범 선생에게 마곡사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다. 인천감옥에서 탈옥한 선생은 세상살이에 무상함을 느끼고 방랑하다가 마곡사에 들어가 삭발례를 올린 뒤, 원종이라는 법명으로 불가에 귀의했다. 나중에 평양의 영천암에서 주지로 주석하기까지 했지만 선생은 도처히 침략자의 만행을 참을 수 없어 승려 생활을 펼쳐 버리고,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펼쳤다.

침략자들이 물러간 조국에 돌아와 마곡사를 찾은 선생은 옛일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무궁화와 향나무를 심었다고 백범일지에 기록했다. 당시 심은 무궁화는 오래전에 죽고 없어졌지만, 향나무 한 그루는 아직도 살아 있다. 키 5

m 남짓에, 줄기 둘레가 1m도 안 되는 작은 나무이지만 '백범 향나무'라는 별명과 함께 뜬직한 자태로 살아남은 것이다.

처음에 선생이 나무를 심은 자리는 마곡사 경내에 들어서기 위해 거쳐야 하는 극락교 앞이었다. 그러나 한때 나무의 생육 상태가 나빠지자, 백범 선생이 승려 생활을 할 때 머무르던 요사채 앞으로 옮겨 심었다. 생육 위기를 피하기 위한 방책이었지만 선생의 지취를 함께 볼 수 있는 자리여서, 오히려 잘 됐지 않나 싶다.

백범 향나무는 절집 사람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아름다운 모양으로 자랐다. 수백 년 된 여느 향나무에 비해 모자람이 없는 생김새다. 작지만 민족혼의 기개를 담은 나무라는 생각 때문에 더 소중한 가치를 여겨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줄기에서 독특한 향이 나는 향나무는 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 가운데 하나다. 향기가 좋기 때문에 한자로는 목향(木香)이라고 쓰기도 한다. 대부분의 향을 나무에서 만들어 내던 옛날에, 향기

를 얻기 위해 심어 키운 나무다. 향나무의 향기는 몸과 마음을 맑게 할 뿐 아니라, 하늘 끝까지 뻗어 나간다는 생각에서 조국을 향한 충정, 민족의 평화를 향한 희망의 염(念)을 상징할 수 있는 나무를 찾았다. 침략자들은 물러갔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룬 해방이 아니라는 점을 안타까워한 선생은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며, 침략자의 만행을 잊지 말자는 다짐을 담을 수 있는 나무이런 좋겠다고 생각했다.

민족 해방의 뜻을 오래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사철 푸르른 잎을 달고 있는 상록수, 즉 향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게다가 완전한 해방을 향한 민족의 기원이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도록 침략자의 악취를 말끔히

씻어 낼 때까지 지닌 나무였으니, 그만큼 알맞춤한 나무가 없었다. 결국 독립투사 백범은 이 땅의 완전한 광복과 해방을 향한 처절한 염원을 담아 향나무 한 가루를 고이 심은 것이다. 형태로 남지 않은 사람의 한과 기원은 그가 심은 한 그루의 나무 안에 고스란히 남았다. 아직 어린 나무이지만 잘 보호하며, 나무를 심은 사람의 뜻을 오래오래 해 내려야 할 일이다.

있고 싶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침략자의 역사를 하나하나 짚짚히 되짚어 보게 되는 시절이다. 얼마 전 세상을 달리한 시인 허수경이 산문집 '너 없이 걸었다'에 남긴 한 문장이 아프게 되살아난다. "기억하지 않고 묻어 버린 공동체의 과거는 언젠가 그 공동체에 비수를 들이댄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와 해결하지 않은 채 묻어 두었던 한 많은 기억들이 비수 되어 쫓히는 이즈음, 조국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열혈남아 백범 김구 선생이 심은 향나무에 담긴 뜻을 곰곰 되새겨야 할 이유가 또렷이 살아 오른다.

〈나무 칼럼니스트〉

기고

국립 난대수목원 최적지, 완도



신우철 완도군수

전역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 공해, 식품 첨가물 사용의 증가, 서구식 주거 문화로 인한 아토피 등 피부염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치유하는 베타피넨(β -pinene) 물질이 풍부한 동백나무가 전국 분포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540ha에 집단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도는 공기 비타민이라고 하는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에 비해 50배나 많으며, 천연 황금 도료이자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심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안식향 물질이 풍부한 황칠나무가 집단 자생하는 곳으로 힐링과 자유의 최적지입니다.

제작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멸종된 식물속, 완도에서 80년 만에 자생지 발견', '물석송은 따뜻한 날씨와 그들이 없는 습지 등 생장 조건이 까다롭고, 자생지가 제한적인 식물입니다. 이처럼 완도는 국내 최대 상록 활엽 난대림 자생지이자 멸종된 식물도 되살아날 만큼 종 다양성이 풍부해 산림 생물 자원 보전과 활용을 위해 조성하고자 하는 국립 난대수목원의 최적지임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완도에 국립 수목원이 유치된다면 2만 8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연간 방문객 150만여 명, 경제 파급 효과는 약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연구, 조사되어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국토 균형 발전 효과와 매우 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지적 여건에 있어서도 완도수목원은 북위 35도 이남의 지리적 위치와 쓰시마 난류 및 제주 난류에 의해 온화한 난대 기후대를 형성하고, 연중 기온이 14도 이상으로 공중 습도가 높아 난대수목이 잘 생육할 수 있는 천혜의 기후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시 인공 식재를 통하여 울창한 숲을 이루어 조성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 20~30년 시간이 필요하나 완도수목원은 이미 울창한 난대림으로 인공적인 수목 식재가 필요하지 않음에 따라 기후대별 온실 등 시설물은 설치와 동시에 즉시 개장이 가능하고 단기간 내 조성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남도가 자체 조사한 타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 등 총 비용이 3717억 7000만 원인데 반해 편익은 수목원 입장과 교육, 관광시설이

등 8834억 6200만 원이며, 비용 편익 비율(B/C)은 1.46으로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완도군은 완도수목원의 생태학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등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완도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핵심 전략 산업으로 '해양 치유 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국가 지정 해양 치유 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해양 치유 센터 건립과 해양 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 등을 통해 해양 치유 산업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완도수목원이 국립 난대수목원으로 지정된다면 완도군은 산림 치유와 해양 치유 산업이 상생 발전하는 치유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산림은 미래의 자산입니다. 완도수목원은 입지적, 학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우월하며,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반드시 국립 난대수목원이 완도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손색없는 난대림의 보고 완도수목원이 국립 난대수목원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5만 여 완도군민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의료칼럼

건강한 여름 나기



신효정 상무힐링재활요양병원 원장

떠나기도 하지만 오히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큰 화를 초초하기도 한다. 또한 냉방병, 식중독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별하게 건강 관리를 하여야 한다.

여름철에는 실내의 온도차가 5-8도 이상 되는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우리 몸의 체온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생기는 냉방병이 급증한다. 냉방병은 감기, 두통, 근육통, 식욕 부진, 소화 불량 같은 증상을 동반한다. 무엇보다 실내의 온도차가 5-6도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름철은 고온 다습해 음식물이 상하기 쉽고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기 때문에 식중독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식중독은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하여 발생했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이다'고 정의한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해 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으로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육류, 가금

류, 해산물 등은 60도 이상으로 익혀먹고 4도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 과일과 채소를 비롯한 모든 음식물들을 반드시 씻어서 섭취하고 어패류를 날로 먹지 않아야 한다. 행주와 도마를 깨끗이 소독하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식중독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중독 예방뿐만 아니라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첫째, 무더운 여름철에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지는 피하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잠은 보약이라고 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카페인과 음주를 피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

둘째, '제철 음식이 보약이다'는 말처럼 제2의 보양식인 제철 음식이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 삼계탕, 추어탕 등 보양식과 더불어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부추 등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좋다.

셋째,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 우리 몸의 8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보

건기구에서는 하루 물 섭취량을 1.5~2ℓ로 권장하고 있다. 탄산음료보다 이온음료를, 커피보다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넷째, 여름철에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을 피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 팔토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바닷가에서는 자외선이 100% 반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야 한다.

다섯째, 휴가철에 장시간 운전을 하는 경우 한 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나 집에서 있는 경우에도 20-30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펴고 스트레칭을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습관적인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 손 씻기는 건강 관리의 시작으로 손 씻기만 잘해도 많은 전염병을 비롯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1분 이상 손을 씻으면 손에 있는 병원균의 99%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감기에 걸렸으면 침을 바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社說

정부 지원 없이는 나주 SRF 갈등 해결 어렵다

공론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던 나주 혁신도시의 고행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갈등 해결 기구인 민간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6개월간의 논의 끝에 도출한 합의안을 거부하자 다른 한 측인 주민들이 거버넌스에서 이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거버넌스 공동위원장들은 그제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렵게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지역난방공사 측이 한 발 양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60일의 시험가동과 30일의 본 가동을 진행한 뒤 주민투표와 공론조사로 연료 사용 방식을 결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역난방공사 측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매몰 비용 주체를 명확히 해달라며 서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와 나주시, 그리고 주민들은 합의안에 따라 먼저 환경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고 SRF 대신 LNG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발생하는 매몰 비용 부담 주체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난방공사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SRF 폐기 결정에는 매몰 비용 문제만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과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문제가 걸려있는 터라 무작정 난방공사 측의 반대를 뚫힐 수만도 없다.

따라서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합의안이 파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타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산자부가 거버넌스에 참여한 목적도 정부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까지 '강건너 불구경식'의 정부 태도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조성한 혁신도시 정진과도 맞지 않다.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가 어제 16개 이천 공공기관협의회체인 기관장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SRF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아무래도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파국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폭염도 괴로운데 아파트 공사 소음·분진까지

무더위가 한창인 광주 곳곳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과 분진,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불편 등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속출하고 있다. 공사장 주변 주민들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창문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불편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산수동 장원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은 지난달 초 (유)명지개발의 아파트 신축 공사로 소음과 분진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명지개발은 올해 1월부터 산수동 16-1번지 일원에 15층짜리 6개 동 규모 아파트 270세대를 짓고 있다.

주민들은 업체가 일요일까지 공사를 진행해 휴식을 방해하고, 분진이 공사장 가림막을 뚫고 집안으로 날아오며, 공사장 진입로도 주책가 골목길로 이어져 극심한 통행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동구 관계자들이 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소음이 주간 기준 65데시벨

(dB)을 초과했고, 추락 방지 시설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구는 닷새간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하면 서구 화정동 주민들은 오는 11월 입주할 앞둔 도나우프리 아파트 공사 때문에 지난달 초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기도 했다. 출근 시간인 오전 여덟시만 되면 탑프트럭이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 편도 2차선 중 한 차선을 불법으로 가로막고 대기한 탓이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광주 지역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는 42개 단지에 2만 1362세대에 이른다고 한다. 연일 폭염 특보가 이어지는 날씨에 이들 현장에서 소음과 분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주민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건설업체들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자체 역시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물론 그렇지 않은 곳이라도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과 함께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20년 프랑스 파리. 6층 건물 창문에서 있던 만삭의 여인이 몸을 던진다. 잔에뒤편(1898-1920)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고 만 것이다. '목이 긴 여자'를 주로 그렸던, 그녀의 남편 아메데오 모달리아니(1884-1920)는 바로 르네 세상을 떠났다. 아내를 모델로 한 '큰 모자를 쓴 잔 에뒤편' 등 수많은 초상화를 그렸지만 자신의 모습은 화폭에 담지 않았던 모달리아니의 '마지막 작품'

이제 막 세상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젊은 연주자들의 무대를 보는 건 설레는 일이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산하 양은 개인 사정으로 서울예고를 중퇴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레슨과 연습을 통해 이날 공연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금호 주니어콘서트에는 최연소자인 플루트의 홍재리(유안초 4년, 28일) 양을 비롯해 바이올린의 남빈(예원학교 1년, 13일) 양 등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이 무대에 선다. 1시간 30분에 이르는 독

누군가의 '처음'

이우리의 책 '화가의 마지막 그림'에는 빈센트 반 고흐, 에곤 실레, 이중섭 등 유명 화가들의 '마지막 명작'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예술가의 '최후의 작품'은 단순히 연대기 순의 '마지막'을 넘어서, 한 작가의 인생이 응축돼 있는 터라 묵직하고 의미 있게 다가온다.

누군가의 '마지막'에 대한 글을 읽으며 누군가의 '처음'을 생각한다. 며칠 전 김호 주니어콘서트(28일까지)에 다녀왔는데,

중형을 홀로 책임지는 건 이들에게 큰 도전일 것이다. 화려한 드레스가 아작은 썩스럽고, 박수갈채를 받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지만, '꿈'을 향한 첫 향해에 나서는 이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무대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클래식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공연장을 찾아 응원하길 바란다. '의외의 실력'에 깜짝 놀라며 즐거움 경험을 할 수도 있으리라. 또 시간이 흘러 이들이 큰 무대에서 활약하게 된다면, 그들의 '처음'에 내가 있었을 기억하며 빙그레 미소 지을지도 모를 일이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0633/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 |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 |
|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 |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내선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 220-0515 문화사업국 |
| 220-0649 | 문화부 | 220-0661 | (FAX 222-8005) |
| 220-0632 | 체육부 | 220-0633 | (FAX 222-0195) |
| 220-0663 | 예향부 | 220-0692 | (FAX 222-0195) |
| 220-0652 | 사건부 | 220-0694 | (FAX 222-0195) |
| 220-0642 | | | (FAX 02-773-9331) |
| | | | (FA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